



구례 하사마을 어머니들의 따뜻한 그림일기

엄마의 품

5. 3 ~ 6. 3 롯데갤러리, 그림·아트상품 등 전시
그림책 출간 예정... 9일 오픈석 할머니들 참석



“조기도 기리고, 갈치도 기리고. 닭을 그리면 오리가 되뿌러, 말도 안되게 그려놓고 웃어.”(한동택 김동순)

“학교도 못 다녀서 그림 그리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세상이 좋아져서 그림 그리 수 있게 해 주니까 고맙고 좋지. 저번 달에 새끼들한테 내 얼굴 그린 거랑 사진 가져 가서 보여줬어. 엄마 죽고 없어도 이 사진 보라고 했어.”(강실덕 김복순)

구례 하사마을 80대부터 60대 할머니 18명은 3년간 그림 일기를 그렸다. 농번기를 피해 1주일에 한번씩 마을회관에 모여 그림을 그리고, 일기를 쓰고, 그림책 체험을 했다. 재미난 수다가 늘 함께했던 시간,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할머니들의 그림 일기를 모은 '엄마의 품' 전시회가 3일부터 6월 3일까지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에는 할머니들의 작품 110여점이 내걸린다. 배 타고 섬진강 건너 구례로 시집은 사연, 아이 다섯과 조카까지 여덟개의 도시락을 썼던 기억, 꽃무릇 앞에 선 어릴 적 딸의 모습, 공기와 소꿉놀이하던 유년 시절, 많이도 울었던 큰아들 졸업식. 전시장에서 만나는 작품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이기도 하다.

'시집 온지 58년 동안 6남매 키우고 가르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편안하고 편안해요'라는 글과 함께 자화상을 그린 고(故) 조순복 할머니의 그림은 애잔하다. '신랑이 월급 받아 새로 나온 전기밥솥을 사다 줬네. 겁나게 좋아 부엌네!'라는 글과 함께 마마 밥통을 들고 있는 남편을 멋지게 그린 월전택 문승영 할머니의 그림은 미소를 짓게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림책 작가이자 화가인 오지근·박나리 부부가 지리산시협동조합과 함께 3년째 진행 중인 생애사 아카이브 구축작업 중의 하나다. 부부는 할머니들과 함께하며 “온몸으로 살아오신 이야기가 글 잘 쓰는 시 보다는 더 진하게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목울대가 차오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고 말한다.

할머니 한명 한명의 삶이 기록된 그림과 글, 구술 채록은 조만간 그림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할머니들의 작품으로 만든 다양한 아트상품이다. 꽃과 나무, 인물, 음식 등 소박한 그림은 파우치, 머그컵, 스프링 노트, 메모장 등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나 갖고 싶을 만큼 예쁘다.

아트상품은 현장에서 판매하며 화원사 등 구례 명소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보낸 10명에게는 파우치를 무료 증정한다.

오는 9일 오전 11시 열리는 오픈 행사에는 할머니들과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왼쪽부터 김명우, 임용현, 유지원, 백나원, 최석영 작가. <광주문화재단 제공>

2019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작가들 본격 활동

5명 입주 내용·일정 논의... 세계수영대회 기간 전시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9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작가들이 입주를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입주작가는 임용현, 백나원, 수요일(최석영), 유지원, 김명우 작가 등 모두 다섯 명. 이들은 최근 입주를 마치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 유원준, 김성호 등 미디어아트 기획자와 입주작가가 일대일로 매칭돼, 비평과 코칭 등을 받는다. 또한 2019 미디어아트페스티벌 출품을 위한 공공작품 제작, 역량강화 워크숍, 기획전시 및 시민 미디어아트 아카데미도 눈에 띈다.

특히 올해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기획전시를 개최해 외국 방문객들에게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의 미디어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 수요일(최석영)은 지난 해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에 출품한 계기로 광주와 인연을 맺은 VR 제작 전문가이다. 광주

민중화 운동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유 VR 작품 '오월, 꽃이 피다' 제작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실감미디어 프로젝트 학교 운영 등 광주만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유지원은 프랑스와 일본에서 활동한 작가다. 다양한 장소에서 실험적이고 참신한 작업을 진행하며 다른 작가들과의 정기적인 교류, 기획전도 추진할 예정이다.

백나원은 런던예술대학교, 워블던 컬리지와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컬리지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과 런던을 오가며 작업과 문화예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간과 사람의 상상성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창조한다는 복안이다.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미디어아티스트 김명우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과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다 나은 성과를 얻는데 초점을 맞췄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가정의 달, 문화누리카드 할인혜택 풍성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누리카드의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패밀리랜드는 올해 처음으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게 대한 할인을 신설했다. 자유이용권 구매 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면 동반 1인까지 약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성인은 2만2000원(정상가 3만2천000원), 청소년은 1만9000원(정상가 2만8000원), 어린이는 1만5000원(정상가 2만2000원)으로, 1년간(2020년 4월 30일까지) 적용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어린이날 이벤트로 가족 뮤지컬과 홀로그램쇼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을 선보인다. EBS 어린이 창작 뮤지컬 '세계문명탐험대-태양의 나라 이집트'는 오는 4-5일 이를 동안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4회 공연이 진행된다. 패키지 상품인 홀로그램쇼 '변개맨, 변

개크리스토를 지켜라'와 미디어아트 놀이터 체험은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2020년 5월 2일) 온라인예매(인터넷파크)와 현장예매가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면 기존 패키지 할인가에서 추가할인이 적용돼, VIP석은 2만7000원, R석은 2만4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티켓수령 시 문화누리카드 지참 필수) 문의 02-586-0622-3, 062-670-7452-5.

이밖에 북구 중외공원 놀이공원은 회전그네, 바이킹, 하늘자전거 등 놀이기구도 문화누리카드로 이용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3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8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생활 복지카드다. 문의 062-670-7914. /박성천 기자 skypark@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